

사 내 한

CN 09-39



CHAIRPERSON NOTE

체어퍼슨노트

Sept. 18, 2002

2009.10.01 (통권268호)

경제 이슈

- 美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증가
- 국내 경기 회복세 주춤

경영 노트

- 자력(自力) 성장의 성공 비결: '선택과 집중'

사회 트렌드

- 우파, 유럽을 접수하다

차이나 리포트

- 향후 10년 간 중국 경제, 산업 트렌드

저널 브리프

- '탄소 제로'를 지향하는 도시들

洗心錄

- 대각선의 법칙

□ 美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증가

- 미국 상무부(30일)에 따르면 2009년 2분기의 주요 경제 지표들의 감소율이 둔화됨에 따라 미국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 증가
 - 실질 국내총생산 :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감소율이 0.7%로 1분기 감소율 6.4%에 비교하여 감소율이 매우 둔화됨
 - 상품과 서비스 실질 수출과 수입 : 2분기 상품과 서비스 실질 수출 감소율이 4.1%로 1분기 감소율 29.9%에 비교하여 감소율이 둔화되었고 상품과 서비스 실질 수입 감소율도 14.7%로 1분기 감소율 36.4%에 비하여 개선
 - 국내 총 민간 투자 : 2분기 국내 총 민간 투자 감소율이 23.7%로 1분기 감소율 50.5%에 비교하여 감소율이 둔화
- 미국 주요 경제지표들의 개선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분기 가용개인소득도 3.8% 증가율을 기록하여 1분기 0.2%에 비하여 개선됨에 따라 경기 회복 모멘텀 증가

□ 국내 경기 회복세 주춤

- 통계청(30일)에 따르면 8월 산업 활동은 생산과 소비가 전기대비로 소폭 둔화된 가운데 투자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임
 - 광공업 생산 : 8월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.2%로 7월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전기대비로는 7월 2.1%에서 8월 -1.3%로 감소세를 기록
 - 소비재 판매 : 소비재판매액지수 증가율도 전년동월대비로는 2.0%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, 전월대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와 비내구재 부진으로 0.3% 감소
 - 투자 : 8월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-16.6%로 감소세가 지속되었고, 건설투자도 민간부문의 건축공사 실적 부진으로 6.8% 감소. 다만 전월 대비로는 기계류 투자가 늘면서 설비투자가 2.8% 소폭 반등
- 한편,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대비 0.5p 상승하였고,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 선행지수도 전월대비 1.2%p 상승하여 국내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

□ 자력(自力) 성장의 성공 비결: ‘선택과 집중’*

- (현황) ‘포춘 글로벌 500’의 기업 중 ‘자력 성장’(Organic Growth)에 집중한 기업들이 두 배 이상의 수익 증가율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그 비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
 - 기업 성장 전략에는 자력 성장 전략(Organic Growth)과 외부 성장 전략(Non Organic Growth)이 있음
 - 자력 성장 전략은 기존에 보유한 경영 자원을 활용한 성장 전략을 의미하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음
 - 외부 성장 전략은 M&A, 정부 정책 등 기업 외적 요인에 기반한 전략을 의미
- (성공비결) 자력 성장 전략으로 성공한 기업들은 소수의 가치 있는 아이디어 및 사업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공통점을 지님
 - 시장 잠재력을 기준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이를 상품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모든 자원을 집중함
 - 실제로 핵심 프로젝트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여러 개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을 소모함
- (사례) 네슬레, GE 등의 기업은 소수의 혁신 프로젝트를 기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자력 성장 전략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었음

< 네슬레와 GE의 선택과 집중의 사례 >

세 부 내 용	
네슬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네슬레의 CEO인 Peter Brabeck-Letmathe는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수를 반으로 줄인 대신 남아있는 프로젝트에는 R&D 투자를 두 배 이상 늘렸음 · 이에 대한 결과로 갓 볶은 에스프레소를 캡슐에 담아 향을 보존한 제품 Nespresso를 개발하여 새로운 캡슐 커피 시장을 창출
GE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‘1억 달러 이상의 자력 성장 잠재력 창출’을 평가 기준으로 기존의 2,000개에 달하였던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80개로 축소하였음 · 경영진은 이 가운데 8~10개의 핵심 아이디어를 다시 선정하고 이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CEO의 관리를 통해 보다 집중적인 지원과 세심한 관리

*본 자료는 Harvard Business Review 10월호의 “Focus Intensely on a Few Great Innovation Ideas”를 요약정리함

□ 우파, 유럽을 접수하다*

- 유럽에서 좌파가 방향을 잃고 헤메고 있는 가운데 각국 우파들의 중도 실용 노선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음
 - 유럽의 우파 정부과 좌우 이념에 관계없이 사람과 정책을 가져다 쓰면서 좌파의 입지는 더 좁아지고 있음
 - 지난 27일 독일 총선에선 실용을 표방한 중도 우파의 앙겔라 메르켈(기민당)가 승리했고 좌파를 대표해온 사민당은 참패
 - 현재 영국·스페인·포르투갈을 빼면 대부분 중도파 또는 우파가 집권
- (독일) 메르켈의 이번 선거 공약은 그의 중도 노선을 잘 보여주고 있음
 - 전통적인 우파식 소득세, 법인세 공약을 내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에는 반대
 - 여성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겠다는 약속도 했고, 올 초에는 은행 국유화 계획도 발표
 - 이 때문에 메르켈은 1990년대 헬무트 콜과는 다른 아데나워식 사회적 시장경제의 계승자란 말이 나옴
- (프랑스) 우파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"프랑스를 위한 것이라면 좌든 우든 관계없다"는 실용철학을 추진
 - 그는 공무원 수 감축과 법인세 인하 등을 추진하면서도 '행복지수'가 담긴 GDP를 제안한다든가, 탄소세 도입 등 좌파 경제학자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고 있음
- (유럽) 중도우파 정부들은 과거 좌파의 복지정책을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실용화
 - 스웨덴의 중도우파 정부는 밀빠진 독에 물 붓기 식 복지를 '워크페이(일하는 복지)'로 전환하면서 실업자 재교육 등 꼭 필요한 곳에 적용
 - 좌파가 집권하고 있는 영국, 스페인, 포르투갈도 중도 노선으로 수렴
 - 스페인 사파테로 총리(사회노동당)는 첫 번째 집권 때와는 달리 부유세 성격의 세금폐지를 약속하는 등 좌파노선을 일부 수정하면서 연임 성공
 - 영국의 집권 노동당의 경우, 이미 토니 블레어 전 총리 때부터 보수당보다 더 우파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분석

* "중도실용 노선 깃발 아래, 우파 유럽을 접수하다"(중앙일보 2009.9.29)

□ 향후 10년 간 중국 경제, 산업 트렌드*

- 향후 10년 간 중국은 경제의 국제화, 산업의 고도화, 시장의 광역화를 이룩함으로써 세계 경제에서 중요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
 - 위안화 국제화 가치상승 지속 : 2020년 경 세계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10%를 상회, 미 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4.2 대 1로 상승
 - 2020년 경 중국 GDP 규모는 빠른 경제성장과 위안화 가치 상승으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
 - 따라서 위안화의 결제비중 상승은 물론, 외환거래와 비축 수단으로서의 비중도 급격히 상승
 - 그러나 자본거래에 대한 개방과 변동환율제도의 도입 지연은 위안화 국제화에 걸림돌로 작용
 - 자동차 강국으로 부상 : 녹색경제의 대두로 중국이 새로운 자동차 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
 - 2020년 경 중국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2,000만 대에 달하고 보유량은 1억 8천 만 대를 돌파함으로써 미국에 이은 2위로 부상
 - 특히 신재생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그린카(green car) 분야에서는 당당히 세계 1위가 될 전망
 - 핵심 자본시장으로 도약 : 10년 후 중국 자본시장은 규모와 질적인 측면에서 글로벌화 실현
 - 2020년 경 중국 증시 시가총액은 8조 위안을 초과, 상장회사 수는 5,000개에 달할 것으로 보임
 - 채권시장 규모는 주식시장의 2~4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
 - 또한 상장회사 중 15% 정도인 1,000여 개의 외국기업이 상해 증시 상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것으로 보임

* 경제참고보(经济参考报), 9월 29일자 분석 기사 : '경제참고보'는 신화통신사가 발행하는 중국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시사 일간지임

-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 : 10년 후 중국의 도시 인구는 8억 명에 달하고 도시화 비율은 60%를 상회할 것으로 보임
 - 농촌 주민의 자유로운 이주를 제한하는 ‘호구제도’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농촌 주민의 도시 이주가 폭발적으로 증가
 - 도시화의 진전으로 도시 소비시장의 급속한 확대가 기대되며, 따라서 서비스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됨
- 그 외에도 섬유대국에서 섬유강국으로의 전환, 문화산업과 제조업의 융화 등 중국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질적인 향상이 예상됨

< 향후 10년 간 중국 경제, 산업 10대 트렌드 >

구분	트렌드	전망(2020년)
1	위안화 국제화 가속, 가치 상승 지속	- 세계교역에서 위안화 결제비중 10% 초과 - 외화거래와 비축수단으로서의 비중 15% 초과 - 미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은 4.2 : 1
2	자동차 강국으로 부상	- 자동차 보유량 1.85억 대로 세계 2위 - 자동차 연간 생산량 2,000만 대 달성 -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생산량, 보유량 세계 1위
3	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발돋움	-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미국의 1/3에 불과 -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20%로 상승(현재 : 3%)
4	은행 부문 '금융백화점'으로 전환	- 기업금융 위주에서 소매금융 위주로 전환 - 은행 중심의 보험, 증권, 펀드 등 업무를 통합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
5	섬유대국에서 섬유강국으로 진화	- 섬유 생산량은 4,000만 톤을 초과 전 세계 생산량의 40% 수준 유지
6	제조업과 결합한 문화산업의 급팽창	- 문화관련 벤처기업의 GDP 기여율을 현재의 3%에서 7%로 상승
7	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	- 지능형, 에너지 절약형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 급증, 전자상거래 비중이 획기적으로 증가
8	식량 수급 안정 위협	- 인구 증가로 식량 수급 불안정 상태 지속 - 쌀, 밀, 옥수수 자급률을 90%, 95%, 60% 수준으로 향상
9	자본시장 개방 확대	- 증시 시가총액은 8조 100억 위안(현재의 2배), 상장회사 수는 1,683개에서 5,000개로 증가 - 상장기업 중 외국기업 수는 1,000개 정도로 전체의 15% 차지
10	도시화의 급속한 진전	- 도시 인구는 8억 명으로, 도시화율은 60% - 산아제한 정책으로 도시인구의 자연 증가는 완만한 반면,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가 주류

자료 : 경제참고보, 9월 29일자

□ ‘탄소 제로’를 지향하는 도시들*

■ ‘탄소 제로(carbon zero) 도시’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‘0’인 도시를 지칭함

- 세계 각국들이 자원고갈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‘탄소 제로 도시’를 건설 또는 계획 중에 있음
- 이들 도시에서는 풍력·태양광·바이오매스(biomass, 열분해시키거나 발효시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생물체) 등 신재생에너지를 주로 사용하고 고효율 건축 설계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며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배기가스를 감소시킴

< ‘탄소 제로’ 를 꿈꾸는 도시들 >

	내 용
마스다르 (아랍에미리트)	- 세계 4위의 석유 부국인 UAE 수도 아부다비가 ‘석유 이후 시대’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, - 태양에너지를 기반으로 탄소배출, 화석연료, 쓰레기, 자동차가 없는 탄소중립도시 구축을 목표로 함
독사이드 그린 (캐나다)	- 최고등급의 에너지 효율 기준에 맞춰 건물과 도시 시스템을 설계하였음 - 바이오매스발전소로 도시 에너지 수요의 75%를 공급함 - 지난 해 말 완공된 주거지역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분양률이 95%를 상회
프라이부르크 (독일)	- 1974년 원자력발전소 반대운동을 시발로 시내 축구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은 것이 그 시초임 - 이후 20년 넘게 ‘탄소 제로’를 목표로 노력한 결과, ‘독일의 환경수도’라는 명성을 구축하였음
그린마운틴 (리비아)	- 고대 로마와 중세 이슬람 유적지가 어우러진 관광지 전체를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에 기반한 녹색관광단지로 개발 중
둥탄(중국)	-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형태로 계획 중에 있으며 2050년에 완공예정
H2PIA (덴마크)	-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수소연료연지에 저장·공급하는 방식으로, 세계 최초의 수소연료전지에 기반해 운영되는 도시를 개발할 계획

* “‘탄소 제로’ 꿈의 도시 건설 붐”(조선일보, 2009.9.22) 참조

□ 대각선의 법칙

인간관계의 심리학으로 명성을 쌓은 치바대학 명예교수, 다고 아키라는 그의 저서 <유쾌한 인간관계의 기술>에서 ‘대각선의 법칙’을 소개한다. 좋은 인상을 갖으려면 대각선으로 앉아서, 얼굴 정면을 보여주기보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. 서먹서먹한 상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본다는 것은 부담감을 준다. 인간의 시선은 사선의 끝을 바라볼 때 가장 편하기 때문이다. 반대로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관계를 정리하고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정면에 앉으면 된다. 얼굴의 정면을 보여주며 대화를 하면,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내게 두려움과 위압감을 느낀다.

비단 일대일 대화에서만 이 같은 대각선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. 가령 네 사람이 4인용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눈다고 하면, 나의 대각선 방향에 앉은 사람에게 주로 시선을 주며 대화를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. 지나치게 대각선 방향에 앉아있는 사람만 의식해서는 안 되겠지만, 대각선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주된 시선을 던진다면, 내 앞에 앉아 있는 두 사람 모두에게 얼굴 정면을 노출하지 않는 효과를 갖는다.

강연이나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. 청중 앞에 정면으로 서기보다는 약간 비스듬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청중이 내 얼굴을 가능한 한 정면에서 바라보게 하지 않도록 한다.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며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사람보다 거슬리지 않는 작은 손짓이나 몸짓 등의 제스처를 적절히 섞고, 연단에 꼼짝 않고 서 있기보다는 좌우로 약간씩 움직이며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이 청중에겐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.

자신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여주며 대화를 하는 사람은 아마도 정치가 유형이다. 정치가들은 위엄과 권위를 가장 중시하기 때문이다. 하지만 친밀감과 연대감을 주고자 한다면 정면 노출은 삼가는 게 바람직하다.

君子는 不以言舉人하며 不以人廢言 이니라. <論語>

군자는 말을 잘 한다고 사람을 천거하지 않고,
사람이 시원찮다고 그 말까지 버리지 않는다.